

김선두 개인전

《푸르른 날》



김선두, 〈낮별-옥수수 Daytime Stars-Corn〉, 2024, 장지에 분채, 127x76cm

전시제목 : 김선두 개인전 《푸르른 날》

전시기간 : 2024년 7월 17일(수) – 2024년 8월 17일(토)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신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48-4)
학고재 오름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총 36 점

○ 담 당	이소정 sojeong@hakgojae.com , 김모희 moh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 도 자 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40717-20240817_김선두, 푸르른 날

1. 전시 개요

학교재는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김선두 개인전 《푸르른 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선두》(2020) 이후 4년 만에 학교재에서 열리는 개인전이다. 전시 제목은 서정주의 시 「푸르른 날」을 차용한 것으로, 삶의 본질에 대한 작가의 오랜 고민과 주제 의식을 반영한다.

김선두는 현대적 감각으로 한국화를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다. 그는 장지에 분채를 여러 번 쌓아 올리는 기법을 사용하여 색을 우려낸다. 장지는 촘촘하고 두껍기 때문에 수십 차례 채색해도 색을 포용할 수 있다. 물감을 머금은 장지에는 색이 투명하고 짙게 발색된다. 채색을 얹어 지우고 더하는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하여 작품에 깊이감을 더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풍경을 담은 〈On the Way in Midnight〉(2024), 〈낮별〉(2021-2024), 〈지지 않는 꽃〉(2024) 연작 외에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나 시인 등의 인물을 그린 〈아름다운 시절〉(2021-2024) 연작이 함께 소개된다. 학교재 본관과 신관 지하 2층에서 36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2. 전시 주제

자연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김선두는 새와 들꽃 등 자연의 대상을 그려왔다. 작가는 자연 풍경 속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며,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색감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그의 작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는 것을 넘어, 자연의 이치 그리고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김선두의 작품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밤길의 정취를 담은 〈On the Way in Midnight〉, 자연을 세밀하게 기록한 〈낮별〉과 〈지지 않는 꽃〉 연작은 인간 내면의 성찰을 이끌어낸다. 김선두의 작업에는 인생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너머의 감정을 보여주며, 생명과 죽음, 희망과 절망, 아름다움과 공허함이 교차되는 삶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작가는 꽃이 피는 찰나, 폭죽이 터지는 순간, 성취의 절정을 포착함과 동시에 그 이후의 감정과 모습을 화폭에 담고자 했다. 〈아름다운 시절〉 연작은 각 인물의 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시적으로 그려낸다. 작품 하단에는 일상을 새겨 그들의 내면 세계에 깊이 공감하게 한다. 절정의 순간은 폭죽이 터지는 순간의 화려함을 담아낸 〈싱그러운 폭죽〉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김선두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찬란한 순간들의 가치를 되새기며, 관객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품이 지닌 다층적 의미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3. 작품 소개



〈낮별-달고나〉

2024

장지에 먹, 분채

144x76cm

붉은 배경색 위에 별과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화폭의 중앙에는 옥수수 줄기가, 하단에는 달고나가 놓여 있으며 그 위에 새가 앉아 있다. 새의 시선은 달고나를 향해 있다.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서만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 별은 언제나 자신을 밝히고 있지만, 환경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도 별은 옥수수, 새, 달고나에 가려진다. 작가는 달고나를 바라보는 새 즉, 욕망을 쫓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질문한다. 〈낮별〉 연작의 배경에는 언제나 반짝이는 별이 담겨 있다. 어떤 시간 속에서도 별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향하게 한다.



〈On the Way in Midnight〉

2024

장지에 먹, 분채

94x144cm

푸른 빛의 밤하늘 위에 보름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작품의 중앙에는 어두운 길을 홀로 걷는 사람이 있다. 보름달의 빛은 어두운 밤길을 밝힌다. 보름달은 암흑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온기가 되어 용기와 위안을 준다. 작가는 암흑 속 두려움을 안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름달의 밝은 빛과 같은 존재가 가지는 힘을 상기시킨다. 〈On the Way in Midnight〉는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여정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운다.



〈아름다운 시절-김수영〉

2021

장지에 먹, 분채

72x37.5cm

〈아름다운 시절-김수영〉은 시인 김수영의 젊은 시절을 담은 초상화다. 작품 상단에는 시인의 초상화가, 하단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 그 아래, 김수영의 「이 한국문학사」가 적혀 있으며, 글씨는 덧쓰여져 마치 연기처럼 보인다. 이 작품 외에 〈아름다운 시절〉 연작에서는 주로 작품 하단에 인물의 일정을 쓰고 지우고 덧붙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반복성과 그 속에서의 변화를 표현한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의미를 형성함을 드러낸다. 유한한 시간 속 찬란한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작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과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환기시킨다.



〈싱그러운 폭죽〉

2023

장지에 먹, 분채

200x800cm

전시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싱그러운 폭죽〉은 폭죽이 터지는 절정의 순간을 묘사한다. 폭죽의 불꽃은 한시적으로 존재한다. 그 이후로는 소멸된다는 점에서 삶의 일시적인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우리가 꿈꾸고 목표로 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그 목표에 도달한 뒤 사라져 버리는 공허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작가는 폭죽이 터지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인생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감정적 여운을 보여준다.

4. 작가 소개

김선두는 1958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다.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포스코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아아! 동양화전》(2023,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무릉도원보다 지금 삶이 더 다정하다》(2023,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음풍영월》(2022,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2021,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디엠지》(2019, 문화역서울 284, 서울) 등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두의 '푸르른 날'

김백균 | 중앙대학교 교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푸르른 날 / 서정주

지금, 여기 김선두의 '푸르른 날'이 펼쳐진다. 서정주는 개체적 자아를 넘어서 본질적 자아, 온 우주와 하나 되는 인식의 환기에서 오는 그 깨달음의 기쁨을 '푸르른 날'이라고 노래했다.

'푸르른 날'에서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마치 꽃처럼 절정으로 피어오른 단풍에 이입하여 단풍을 통해 자신을 초월적으로 보고 있다. 단풍이 꽃 같은 절정에 이른 까닭은 끝없는 투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욕망을 내려놓자 초록의 나뭇잎은 비로소 절정에 도달했다. 봄에 여린 싹으로 핀 초록의 잎이 모진 바람 견디며, 한여름 뜨거운 햇살에 저항하다 지쳐, 더 이상 그런 다툼의 욕망, 삶의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초록은 단풍의 절정으로 피어났다. 욕망을 내려놓았다 해도, 눈이 내리고, 새봄이 또 올 걸 상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아쉬움과 서글픔의 감정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와 내가 같듯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안 순간, 머릿속에서 세상이 밝아지는 '푸르른' 깨달음이 생겨났다.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시인은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정감으로, 몸으로 깨달았다.

이번 전시에서 김선두 역시 살아가며 순간순간 느낀 삶의 의미를 이미지로 직조하여 형식화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푸르른' 깨달음의 세계를 낮별, 아름다운 시절, 밤길, 지지 않는 꽃, 이 네 개의 범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낮별>(2021-2024), <아름다운 시절>(2021-2024), <지지 않는 꽃>(2024), <싱그러운 폭죽>(2023)과 같은 작업은 이곳과 저곳, 이 세계와 저 세계와 같은 상대적 세계에 대한 단상이다.

김선두는 <낮별>에서 현실에서 은폐된 가치를 찾아 이야기한다. 별이란 밤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이므로 별이 된다. 별을 별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분별 의식 때문이다. 별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 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밤이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실상 별은 낮에도 있다. 다만 밤이라는 조건의 미충족에 의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낮별-옥수수>(2024)에서 별들은 화면 전체에 퍼져 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옥수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옥수수 이파리에 앉은 참새처럼 이해관계 속의 옥수수만 바라본다. 그래서 옥수수 뒤에 빛나는 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많은 별들은 우리에게 향유되지 못한다. <낮별-참새들>(2024), <낮별-꿀벌들>(2024)처럼 우리는 벼 이삭이나 꽃만 바라보는 참새들이거나 꿀벌들이거나, 곤줄박이이다.

참새나 꿀벌, 곤줄박이, 딱새, 개개비들과 같은 우리가 '낮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명시적 세계, 혹은 이해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만약 시선을 비유와 상징의 세계, 총체의 시각으로 전환시킨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별을 보는 깨달음의 희열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두의 <낮별>이 아름다운 것은 대상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 즉 우리의 인식을 바꿔 줬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시절> 역시 상대적 시각에 대한 성찰이다. <아름다운 시절-김수영>(2021)의 백미는 김수영 시인의 눈동자에 있다. <아름다운 시절-김수영>에 드러난 김수영 시인의 눈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을 것 같은 느낌과 초탈의 상반된 느낌이 동시에 존재한다. 광대와 수염, 얼굴 전체에 퍼져 있는 단아한 거침, 절제와 분출이 혼재된 인상이 김수영 시인의 시인으로서의 절정의 시기를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김선두가 그린 그의 초상은 김선두가 본 그의 시에 대한 인상이다.

절정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변화 때문에 우리는 절정을 느낀다. 절정이 있으면 몰락도 있다. 그 상대적인 속성 때문에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상대적이다. 그 상대적 세계를 가치의 눈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이다. 김선두는 <아름다운 시절>을 통해 상대적 세계에서, 즉 유한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에게 가치 의식이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병풍 작업으로 선보이는 <싱그러운 폭죽> 역시 절정을 치닫는 순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허무의 이면이 함께 드러나는 작품이다.

<지지 않는 꽃>은 현실에 없는 가상의 꽃이기에 가능한 세계이다. 벽에 그려진 지지 않는 꽃과 그 벽 앞에 피어 있는 생명을 지닌 유한한 존재로서의 앓은 가지의 대비. 유한의 세계를 사는 우리는 <지지 않는 꽃>처럼 변하지 않는 무한의 아름다운 이상을 꿈꾼다. 하지만 그 이상이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 않는 꽃>은 유토피아이고, 허상이다. 현실에는 없다. 그런데 그 유토피아로서의 <지지 않는 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지지 않는 꽃>을 노자(老子)식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세계를 하나의 이름으로 개념화시킬 때, 그 이름은 그 세계 자체가 아니듯 사물의 개념화가 가져오는 불완전성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지지 않는 꽃>의 다의성은 우리의 삶을 반추하는 거울이 된다.

이러한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이나 반성적 사유는 멈춰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김선두는 일찍이 2019 년 <나에게로 U 턴하다>를 통해 이러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론으로써의 세계관을 말한 적이 있다. 길을 간다고 언제나 윤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찾길에서 윤택은 빨간 불로 바뀌어 멈춰 섰을 때만 가능하다. 비유하면 반성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성의 조건이 생겨야만 반성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를 존재 자체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의식의 자각 역시 자신의 본성을 반성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김선두는 삶의 의미를 인간의 내재적 의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재적 의지를 가능케 하는 외적 조건에서 찾는다. 현상 자체는 물론 외적 조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내외 조건의 정합에서 오는 것이므로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줄탁동시(倅啄同時)와 같은 것이겠지만, 내적 의지만 강조되는 세계에서 외적 조건을 먼저 보는 통찰의 눈은 우리를 세계의 총체적 이해의 길로 이끄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김선두 작업의 의의는 상대적 세계 속에서 어떻게 감정적 소비나 의미의 허망함을 극복하고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아 가느냐에 있다.

<On the Way in Midnight>(2024)은 오롯이 삶과 예술에 대한 그의 태도가 묻어나는 작업이다. 그는 인간이란 무언가 추구하는 존재라고 여긴다. 삶도 미래보다 나은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다. 물론 그의 예술적 추구 또한 감각을 통해 더 깊은 인식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 위의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앞을 보고 갈 수 없다. 미래를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걸어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걸어온 길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밤길이라고 여긴다. 어두운 길,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밤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는 앞서 걸어갔던 이가 비추는 발자취가 있기 때문이다. 달빛이 비추는 그 희미한 발자취로 인해 외롭지 않고, 소설가 이청준이 말한 바 있는 '깨어진 영혼들의 대화'에 참여한다.

그의 작업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현실로서의 도시 문명과 원초적 그리움을 간직한 고향의 황톳길과 수풀 우거진 자연, 불완전한 세계로서의 현실과 불완전성이 제거된 이상과 같은 상반된 두 세계의 충돌과 이 두 세계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줬었다. 그의 초기 인물화 <외길>(1985) 역시 균형에 대한 상징과 은유였다. 삶이란 허공 위 줄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 그 위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위태롭고 힘들고, 고된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 세계란 고전에서 끊임없이 언급하는 치우침이 없는 중도(中道)의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김선두의 이야기에 더욱 공감이 가는 것은 그 중도라는 게 단지 인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실천을 통하여 부딪치고 견디며 투쟁하는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김선두에게 중도는 단순한 개념이나 연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위로 느끼는 것이다.

김선두는 바로 그 중도와 총체에 대한 열망, 개념적 인식의 불완전성을 <마른 도미>(2019)를 통해 보여줬다. 이 작품은 총체를 이해하기 위해 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한 면으로 벌려 놓으면, 죽어 있는 세계를 볼 뿐이라는 것이다. 살아 생동하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말라비틀어진 개념적 세계만 인지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구성된 세계를 한 면으로만 보면 그 세계란 완전한 총체가 아니라 마르고 비틀린 생기 없는 피부와 같은 존재의 죽음이다. 이를 언어와 존재의 문제로 환원해 보면, 개념적 언어란 존재 자체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선두는 이 <마른 도미>에서

메시지와 부차적 형식의 관계를 뒤집어 미디어가 메시지라고 역설했던 마셜 맥루한이나, 광기를 배제한 문명은 이성(理性) 혼자서 독백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미셸 푸코, 껍데기가 곧 알맹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현대미술을 집대성한 앤디 워홀이 구축한 현대 정신을 자신의 전통적 작업 방식으로 드러내는 데 성공하였다.

세계에 대한 관찰과 삶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이 재인식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어 온 세상이 밝아 보이는 김선두의 '푸르른 날'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작가 약력

김선두

1958 전라남도 장흥 출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학력

1984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1982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졸업

재직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명예교수

1994-2024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교수

주요 개인전

2024 푸르른 날, 학고재, 서울

2022 김선두전, 갤러리 희, 양산

2021 아트 포 라이프 001: 하나씨와 봄, 오느른갤러리, 김제

2020 김선두, 학고재, 서울

2018 김선두의 먹그림,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6 별을 보여드립니다, 학고재 상하이, 상하이, 중국

2013 느린 풍경, 흰물결갤러리, 서울

서편제: 모든 길이 노래더라, 주위싱턴한국문화원, 워싱턴 D.C., 미국

느린 풍경, 갤러리 희, 울산

느린 풍경, 주독일한국문화원, 베를린, 독일

2012 느린 선의 꿈과 노래, 갤러리 윤, 쾨니히슈타인 임 타우누스, 독일

2011 화가의 눈,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2010 취화선: 흐르는 꿈과 그림, 주위싱턴한국문화원, 워싱턴 D.C., 미국

너에게로 유턴하다, 리씨갤러리, 서울

2007 모든 길이 노래더라, 갤러리가이아, 서울

2005 제 3 회 부일미술대상 수상 기념전, 부일갤러리, 부산

2004 고향 속살 읽기, 학고재, 서울

2000 행, 학고재, 서울

1998 그리운잡풀들, 동산방화랑, 서울

- 1993 12 회석남미술상수상전, 박여숙화랑, 서울
1992 남도, 금호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 2024 삼미전, 수피아미술관, 칠곡
- 2023 흰 여백, 검은 선,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시: 권녕호 · 김선두 · 정민희전, 롯데갤러리, 서울
한국의 미술 세계로 향하다, 헬렌앤제이 갤러리 서울, 서울
아 아! 동양화전,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무릉도원보다 지금 삶이 더 다정하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씨알에서 꽃으로, 갤러리 포레, 서울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 2022 견월사,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시인 김춘수: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뿌리에서 열매까지, 필 갤러리, 서울
음풍영월,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
-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목포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 2020 여수국제미술제,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풍경의 이면, 필 갤러리, 서울
- 2019 디엠지, 문화역서울 284, 서울
- 2018 독도미학, 세종문화회관, 서울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 헌화가(獻火歌), 경포 해변, 강릉
- 2017 한국의 진경: 독도와 울릉도,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울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 수묵의 여명 - 빛은 동방으로부터,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디엔에이 오브 코리아니티, 우양미술관, 경주
한국화를 넘어: 리얼리티와 감각의 세계,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 2015 모래가람: 정종미, 김선두, 우종미술관, 보성
당대수묵, 학교재, 서울
기빙 마이 하트 투 스누피, 에비뉴엘 아트홀, 서울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 아람미술관, 고양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문화역서울 284, 서울
썸 러브, 신세계갤러리, 서울
한국정신,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
- 2014 스페이스 케이 채러티 바자, 스페이스케이, 과천
이청준 · 김선두의 고향읽기, 롯데갤러리, 서울
드로우, 엘아이지아트스페이스, 서울
제 6 회 안견회화 정신,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13 강진, 숨;결: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신세계갤러리, 광주
대숲을 거닐다: 죽림소요(竹林逍遙), 롯데갤러리, 광주
오토픽션: 한국화의 유혹과 저항, 갤러리이즈, 서울
- 2012 겹의 미학,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비틀즈 50 년: 한국의 비틀즈 마니아, 롯데갤러리, 서울
한국의 그림: 매너에 관하여, 하이트컬렉션, 서울
드로잉 다이어리, 신세계갤러리, 서울
동물농장, 스페이스케이, 광주
- 2011 미인도: 전통의 모색, 주위싱턴한국문화원, 워싱턴 D.C., 미국
전통의 재해석, 가가갤러리, 서울
느린 풍경, 작은 우화, 갤러리 익, 서울
- 2010 21 & 그들의 시간들, 금호미술관, 서울
바다가을, 갤러리 서림, 부산
시월 느린 풍경, 앤갤러리, 성남
강진에서 청자를 만나다,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 2009 7080 청준예찬: 한국현대미술 추억사,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7 소장품 특별전: 전통과 현대사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3 취화선, 그림으로 만나다, 금호미술관, 서울
- 2002 역사와 의식, 독도진경판화전,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 2000 산(山) · 수(水) 그 넉넉함으로부터, 현대예술관, 울산
시(詩), 가(歌), 화(畫), 신세계갤러리, 광주
4 인, 수가화랑, 부산
- 1999 몽유금강(夢遊金剛): 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00 년,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화 정황,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중앙미술대전 수상작가초대전, 호암갤러리, 서울
오늘과 하제를 위한 모색,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 1998 드로잉 횡단, 금호미술관, 서울
- 1997 한국화의 오늘과 내일 '97, 아트센터 나비, 서울

- 한국의 미를 찾아서, 사비나갤러리, 서울
 97 한국미술 시점과 모색, 갤러리상, 서울
 한국미술 엔타시스,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제 2 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청년정신 - 남도성, 교육홍보관, 광주
 1996 실크로드 미술기행, 동아갤러리, 서울
 사람+인간: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갤러리목시, 서울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 1970-1990: 근대의 초극, 금호미술관, 서울
 시가 있는 그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개관기념전, 갤러리조, 서울
 1995 95 현대 한국화 상황, 종로갤러리, 서울
 오늘의 한국미술: 현상과 쟁점, 공평아트센터, 서울
 우리 시대 거울 보기, 동아갤러리, 서울
 1994 동학농민혁명 100 주년 기념: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1993 현대미술 40 년의 얼굴: 월간미술 창간 5 주년 기념 오늘의 작가 20 인, 호암갤러리, 서울
 현대한국화: 자연과 삶의 표현, 동아갤러리, 인천
 1992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 표화랑, 서울
 1991 한국화: 자연에 대한 오늘의 시각, 신세계갤러리, 서울
 한국화 동세대전,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1990 젊은 모색 '90: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미술: 오늘의 상황,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90 년대 작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89 '89 서울현대한국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80 년대의 형상미술, 금호갤러리, 서울
 1988 현대한국회화, 호암갤러리, 서울
 1986 비평구상,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1985 한국화 · 채묵의 집점: 청년세대의 모색과 도식 '85, 관훈미술관, 서울

수상

- 2019 제 68 회 서울특별시 문화상(미술 부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
 2009 제 2 회 김홍수 우리미술상, 한국미술협회, 서울
 2004 제 3 회 부일미술대상, 부산일보, 부산
 1992 제 12 회 석남미술상, 석남미술문화재단, 서울
 1984 제 7 회 중앙미술대전 대상, 중앙일보사, 서울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 서울

성곡미술관, 서울

호암미술관, 용인

헌법재판소, 서울